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24호

### 도쿄올림픽 D-12

#### 도쿄 등 수도권 모든 경기장 '무관중' 결정

이지예 뉴시스 기자

#### '부흥 올림픽' 내걸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만신창이'

김형근 YTN 기자

#### 산케이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는 대실수...이해할 수 없어"

박병진 뉴스1 기자

#### 대한체육회, 도쿄올림픽 선수단 위기관리 프로젝트 가동

이상필 스포츠투데이 기자

### 거리두기 4단계

#### '첫 1군 코로나 확진' 프로스포츠 무관중 전환

서봉국 YTN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 도쿄올림픽, 도쿄 등 수도권 모든 경기장 '무관중' 결정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도쿄 등 수도권에 있는 경기장은 관중을 아예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쿄도에 4차 긴급사태가 발령된 여파다.

일본 정부, 도쿄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은 8일 도쿄올림픽 관중 수용 여부에 관한 5자 협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일본에 도착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사흘 자가격리에 들어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IOC는 성명을 통해 "긴급사태에 대응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결정했다"며 올림픽 기간 도쿄 내 모든 경기장에서 관중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쿄 이외에 올림픽 경기장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향후 회의에서 각 지역의 의견을 듣고 관객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NHK방송은 도쿄도와 더불어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가 내려진 수도권 3개 지역의 경기장 역시 지역 회의에서 무관중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도쿄 올림픽은 9개 지역 42개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대부분 경기장은 도쿄 일대 수도권에 있다.

IOC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 5자 협의를 즉각 다시 소집해 관중 수용 규모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IOC와 IPC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회를 위해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이런 조치와 관련해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깊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IOC 등은 지난달 경기장 수용 정원의 50% 안에서 최대 1만명까지 내국인 관중만 수용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결국 수도권 내 경기장은 '무관중' 개최로 전환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도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이 지역에 4번째 긴급사태를 선포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이로써 도쿄올림픽은 전 기간 긴급사태 속에 열린다. 올림픽은 이달 23일 개막해 내달 8일까지 이어진다.



# '부흥 올림픽' 내걸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만신창이'

[앵커]

일본 정부가 일본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며 기대해 온 도쿄올림픽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1년 연기와 무관중 개최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쪼그라들었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기피 대상이 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을 '부흥 올림픽'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을 딛고 부흥을 이뤄낸 일본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겁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전 총리(2020년 3월) : '부흥 올림픽'이라 부를 만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점점 발전해가는 피해 지역의 모습을 세계인이 실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대회 취소를 피하기는 했지만 만신창이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도쿄 등 수도권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흥 올림픽'의 상징인 후쿠시마만큼은 관람객을 입장시킬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후쿠시마 지사가 손사래를 치며 고사한 겁니다. 긴급사태와 무관중 경기로 인한 손실액은 천문학적입니다. 민간연구소인 노무라소켄은 입장권 판매와 이와 관련한 소비 지출 감소액이 천3백억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번 대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 명가량이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지역에는 올림픽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마 미에코 / 도쿄 주민 : 앞으로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올림픽이 열리면 감염자가 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개막식을 열흘 남짓 남긴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일본 정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 산케이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는 대실수... 이해할 수 없어”

news1

줄곧 도쿄올림픽 유관중 개최를 지지해온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이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무관중 형태로 치르는 것은 '대실수'라고 주장했다.

9일 산케이는 '코로나 긴급사태 올림픽 무관중은 대실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케이는 "도쿄올림픽은 8년 전 대회 성공을 약속하며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해 3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대회 1년 연기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안한 시점에서 정부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이겨낸 증거로서의 올림픽 개최를 책임졌을 것"이라며 "세계도 일본의 코로나 대응과 개최 준비 능력을 믿고 기대하며 1년 연기를 승낙했다"고 짚었다.

이어 "무관중 개최는 (이러한)공약의 파기와 같으며, 개최국으로서 부끄러운 대실수다"라며 "유럽과 미국 각지에서 유관중으로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변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국내에서 유관중으로 개최하고 있는 프로야구나 J리그에서 심각한 감염 확대는 보이지 않는다"며 "국립경기장에 관중 1만명을 넣어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 감염 위험이 제로에 가깝다는 슈퍼컴퓨터 '후가쿠'(富岳)의 분석 결과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올림픽만 무관중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관중 없는 개최는 대회의 감동과 흥분을 해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케이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에 관중을 유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크다"며 "그 손실은 단지 티켓 수입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측면만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와 도쿄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전날 오후 5자회담을 열고 도쿄도와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현 등 수도권 1도·3현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케이는 지난달 5자회담에서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만명으로 제한해 국내 관중 입장을 허용키로 했을 때 사설을 통해 "관중의 존재는 강한 순풍이 되어 선수를 고무시키고 대회의 감동과 흥분, 역사적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며 유관중 개최 결정을 반겼었다.

[pbj@news1.kr](mailto:pbj@news1.kr)

## 대한체육회, 도쿄올림픽 선수단 위기관리 프로젝트 가동

대한체육회가 2020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발생 가능 위기를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선수단 위기관리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2020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대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대회 개최가 1년 연기되는 등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대회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시행 중이다.

사전교육은 '공통 교육'과 '종목별 교육'으로 나뉘며, 공통 교육은 △올림픽현장 △플레이북(코로나 대책) △도핑방지 △인권 △안전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대회 기간 중 판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각 종목별로 취해야 하는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해당 종목별 국제심판 등 전문가들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각 종목단체의 주관 하에 지난 6월 15일부터 종목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선수단 본부에는 대회 중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상황, 현지 특수 상황, 심판 오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 및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선수단장을 대표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구성해 이에 대처할 계획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우려되는 각종 사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우리 선수단의 성과와 결실을 보호하고 국민께서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mailto:sports@stoo.com)]



# '첫 1군 코로나 확진' 프로스포츠 무관중 전환

## 앵커

KBO리그 1군 선수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리그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야구 등 수도권 프로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원정 숙소 투숙객 중 확진자가 나온 NC 선수단 검사 결과 2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단 직원이나 2군, 코치가 감염된 적은 있지만 프로야구 1군 선수 확진은 처음입니다.

선수단이 공동생활을 하고, 또 경기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NC 선수단 내 밀접접촉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NC 선수단과 접촉했던 두산에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프로야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응 수칙에 따라 NC 선수단 전원은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격리되며 NC와 경기를 치른 두산 선수단도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KBO 이경호 / 홍보팀장 : 만약에 밀접접촉자로 지정되면 해당 수와 관계자는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대체선수가 대신 특별엔트리로 등록이 돼서...]

NC-키움의 고척 경기, 그리고 두산-LG전도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1군 경기도 6경기로 늘었고, 24일로 예정된 올스타전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프로야구는 2주간 수도권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비수도권은 각 단계별 수용 인원 비율에 따라 관중 입장을 적용합니다.

프로축구연맹 역시 수도권 9개 구단 경기를 향후 2주간 무관중으로 전환했습니다.

13일과 16일로 예정된 올림픽축구팀 김학범호의 평가전도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등 감염 공포는 전방위로 그라운드를 덮쳤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스포츠토토'와 '배트맨' 이외 모든 유사 행위는 불법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51612?ref=naver>

"생활체육 활성화" ...아산시, 배방스포츠센터 개관

<https://www.fnnews.com/news/202107091353165958>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위해 손잡은 영월군·체육회·리조트

<https://www.news1.kr/articles/?4366705>

스포츠까지 넘보는 카카오게임즈...“골프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 확대”

<https://biz.chosun.com/it->

[science/ict/2021/07/09/NRZC7KX6JFDVDFDCN4VWZKUMJ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https://biz.chosun.com/science/ict/2021/07/09/NRZC7KX6JFDVDFDCN4VWZKUMJ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수도권 스포츠 경기 다시 무관중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UHOEEUJ>

순창 오면 경량항공기 탈 수 있다, 항공레저스포츠 도입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6\\_0001502334&cID=10808&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6_0001502334&cID=10808&pID=10800)

올림픽 스포츠클라이밍 금메달 포상금 1억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7\\_0001503333&cID=10511&pID=105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7_0001503333&cID=10511&pID=10500)

대한테니스협회, 주니어 선수 위한 '스포츠과학 교실' 첫 개최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2107091732343673&ext=na&utm\\_campaign=naver\\_news&utm\\_source=naver&utm\\_medium=related\\_news](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2107091732343673&ext=na&utm_campaign=naver_news&utm_source=naver&utm_medium=related_news)

[김세훈의 스포츠IN] 평범한 진리...메달 아닌 기록 중시해야 육상이 발전한다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7101348003&sec\\_id=530101&pt=nv](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7101348003&sec_id=530101&pt=nv)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